

비혈연 골수이식에 관한 뉴스레터

통권 17호

발행일 : 2001.12.20

[기증자이야기]

이웃의 소중함을...

최 성 희

우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생명연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무수한 어려운 사람들과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지켜 만 봐온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골수이식의 경우는 나오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해 왔고 관심도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의 설교 중에 골수 및 장기이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1998년 9월 골수기증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001년 7월 어느날 골수은행협회라며 나와 골수가 일치하는 분이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해 들은 집안식구들과 집사람은 꽤히 골수기증에 동의하였고 오히려 집사람은 더 감사해 하는 모습이어서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혜자 분의 연령이 나보다 몇살 더 많다는 코디네이터의 설명은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분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누님이 한분 계신데 집사람에게 “성희 몸도 마르고, 약한데 아내된 사람이 잘 설득하여 말려야지 쉽게 동의하면 어떡하느냐”고 반대하여 일주일 정도 결정을 미뤘지만, 후에 기도로 후원하겠다며 용기를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수술 일정이 2개월 후로 잡히고 여러 번의 혈액검사와 건강검진 등은 환자와 고통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되어 어렵지 않았지만, 솔직히 병원과 상관없이 지내온 사람이라 떨리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평소 잦은 두통과 가슴근처 통증이 있어 주치의에게 코디네이터와 동행하지 않고 별도로 방문하여 건강상담을 추가로 하기도 했지만 검사결과가 모두 좋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수술의 성공여부에는 전혀 의심이 없었으나, 전신마취가 마음에 걸려서 주치의분과 협의하여 부분마취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술전날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하니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고 코디네이터 나정화씨가 많은

안정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수술당일은 오전 8시30분 경에 수술실로 옮겨졌고 11시경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실에서 부분마취를 할 때까지는 정신이 뚜렷했고, 그 이후는 기억나질 않았습니다. 병실에 돌아오니 내가 큰일을 했구나 생각되어 마음이 무척 뿌듯하였습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편히 있을 수 있었고, 퇴원후 일주일은 심한 몸놀림은 하지 않았고 지금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빌어 수고하시는 '한국골수은행협회'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행한다는 것은 분명 도전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결정 하나가 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그 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며, 모든 과정은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썸튼 수혜자님의 건강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간섭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리며, 건강을 되찾아 또다른 가정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세상에 이웃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길 희망하며.....

사흘간 이산가족이 되어....

고동준 소령

96년도로 기억하고 있다. 성덕 바우만군이 미국의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 생활중 백혈병에 걸려 골수기증자를 모국에서 찾고 있다는 보도로 전국민이 골수이식에 대해 새롭게 생각을 하던 그때 내가 근무하던 옆 부대의 한 병사가 제대 후에 미국까지 가서 골수기증을 하는 것을 보고 같은 부대에 있던 몇몇 간부들과 같이 골수기증 동의서를 작성하고 혈액샘플을 채취했었다. 그리고는 바쁜 군생활로 인해 내가 골수기증희망자로 참여한 사실도 잊게 되었고, 몇년 뒤 육군대학 소령과정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 2001년 2월 골수협회에서 전화가 왔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나를 찾는 전화가 왜 왔는지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었다.

골수협회의 코디네이터로부터 설명을 듣고 두 가지가 신기했다. 첫째는 나와 골수인자(HLA)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상당히 오래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의 혈액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신기하다는 기분이 들게 되었고, 내심 당황도 되었었다. 가장 먼저 걱정되는 점은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내 몸에서 골수를 빼낸다는 것이었고, 둘째로 육군대학 생활의 성적이 앞으로의 군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수업에 빠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기간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점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나마 나를 안심시켰던 것은 또 한사람이 환자와 골수인자가 일치하고 혈액형도 일치하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서 처음 접촉한 사람과 잘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육군대학생활을 하던 중 4월에 처음 접촉했던 사람이 최종 포기 의사를 밝혀 왔다고 골수협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동안 나는 다시 연락이 올 것을 대비하여 여러가지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먼저 나 스스로 골수기증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친한 동기의 아들이 백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 때는 완치단계에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가 나의 결심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 그 친구의 아들은 다행스럽게도 골수이식단계까지 가지 않고 항암제로 치료를 마치게 되었지만, 주변의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이야기와 골수이식은 환자의 거의 마지막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아내도 나의 결심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았다. 다만 육군대학의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수술일자가 9월로 정해져서 8월에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의 내 근무지인 원주에서 수술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2001년 9월은 나에게 여러가지로 기억에 남는 달이 될 것이다. 나의 셋째 공주가 1일에 태어나서 아내와 함께 서울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나는 6일 골수기증을 위해 서울○○ 병원에 입원 했고, 나의 두 딸들은 처가집에서 장인, 장모님이 돌봐주고 있는 거의 총체적인 이산가족의 형국에서 병원에 3일간 머물게 되었다. 내가 입원한 병동은 백혈병환자 병동으로 첫날 저녁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백혈병에 걸려 투병중에 있다는 사실에 숙연한 마음이 들었고, 다들 하얀 얼굴에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나는 군인이라 얼굴이 거무티티해서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원 둘째날 골수채취를 했는데 그간 건강한 편이라 병원에 입원 및 수술을 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수술실의 분위기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11시쯤 전신마취 상태로 골수가 채혈되고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허리 밑으로 통증이 왔지만 장교 체면에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상당히 자제를 했는데 3시간 정도 지나니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아침에 간호사가 저녁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나중에 먹더라도 저녁은 신청해 달라고 하여 저녁밥을 확보(?)한 덕에 저녁을 이상없이 먹을 수 있었다. 상처부위의 출혈도 거의 없고 해서 수술날 저녁에는 걸어다닐 수 있었고, 간병인 아주머니의 병원 체험담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저녁을 보내고 다음날 퇴원을 해서 어머니가 계신 시흥으로 갔다. 고맙게도 부대 지휘관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군생활을 시작한 이래 17년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어머니와 며칠간 함께 지낼 수 있었다.

내가 골수기증을 결심한 후 몇몇 방송에서 골수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이 나왔었고 그 방송을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셨지만 나는 골수기증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고, 골수기증하고 1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부대 간부체육대회의 주전선수로 활약(?)했고 그 이후로는 골수기증한 사실조차 잊고 바쁘게 생활하고 있던 가운데 글을 써달라는 골수협회의 전화를 받고 다시금 그때의 기억을 더듬게 되었다.

골수기증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주변의 환자들을 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이 큰 차이라 할 수 있겠다. 그전에는 주변에 환자가 있더라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골수기증을 받지 못해 안타까움 속에서 지내는 환자들을 볼 때면 다소곳 안스러운 기분이 들곤 한다. 내가 골수기증을 하기로 결심하고 난 뒤 건강진단 및 자가수혈 등 여러가지 준비를 위해 원주에서 서울로 급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부대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도 내 스스로 되새긴 말이 있다. 어

차피 한 번의 삶인데 더불어 살아가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누는 기쁨

윤진호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준다는 것.

그 사람에게에는 유일한 희망, 제3의 싸움에서, 희망이 없는 고독한 싸움에서 삶의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

나는 모른다. 내가 백혈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삶의 희망을 얻는 것이다.

내가 골수기증을 결정한 것은 99년 TV에서 어린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려 아파하는 모습을 봤을 때이다. 그때는 그냥 동정심에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헌혈의 집을 찾았고, 그곳에서 헌혈과 함께 골수기증 희망자로 등록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나와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렇게 1년, 2년, 올해 초에 협회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다. 비디오테이프와 함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님, 그리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할 약혼자에게 물어 보았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만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대답은 NO였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을텐데, 왜 네가 하느냐... 다들 그런가 자기와 관련이 없으면 그만인가?

몇 개월 동안 잊으려고 노력했었다. 우회도 했었다. 차라리 등록을 안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7월인가에 마음을 굳혔다. 나 혼자 하기로, 주위에는 말하지 않기로... 협회에 전화를 걸어 최대한 빨리 하자고 했다. 1차 검사 그리고 자가수혈, 이상이 있다고 했다. 보통사람들에게는 이상이 없지만 환자는 면역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하자고 했다. 다행히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2차 자가수혈, 어머니와 함께 갔다. 아시고 나서는 반대하셨다.

하지만 이미 결심을 하고 난 후라 설득을 했다.

그리고 8월 13일 ○○병원에 입원을 했다. 좀 이상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파서 입원하는데... 14일 수술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취에서 깨어보니 병실로 가기 위해서 대기 중이었다. 병실에 가서 누워있으니 부모님과 친구들이 다녀갔다.

이제는 다 끝나고 지금은 평상업무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전처럼 일을 하고 있다. 처음 1~2주는 좀 힘들기는 했지만, 이제는 궁금하다. 이식을 받은 분이 건강한지, 이식 후에도 치료를 해야 하는지, 잘 견디고 계신지, 완쾌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백혈병에 걸리신 분들도 모두 좋으신 분들을 만나 골수이식 받으셔서 완
쾌되시길 바랍니다.

수혜자분 건강하세요.

김 호 일

“여기다 할까요, 아니면 요기다 할까요”

내일 있을 수술을 위해서 정맥주사 바늘을 내 팔에 꽂아두기 위해서 혈관을 찾던 간호사선
생님이 주사바늘을 찌르기 전에 나에게 물어본 말이다.

원래 수술계획은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가을이다.

내가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곳 저곳 시내를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이고 또 하
나는 서점가서 책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꼭 무슨 할 일이 있다거나 특별히 사려는 책이 있
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랑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러다 보면 특별한 일들도 생기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코스 중에 서점 앞에 있는 헌혈의 집이 있다.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어
서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돌아다니다가 아픈 다리도 쉴 겸 음료수도
한잔 마실 겸해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헌혈의 집을 들락날락 하던 중에 골수기증을 하겠다
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봄이 시작하는 계절이었던 것 같다.
“안녕하세요! 골수은행협회 인데요!” 라고 시작되는 전화 한 통이 왔다. 골수가 일치하시는
분이 계신데 골수기증을 해주실 수 있느냐는 전화였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
고 또는 평생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내겐 3개월 정도의 시간만이
흐른 것 같다. 봄이 끝나가고 있었으니까.

참 많이 망설였다. 가족들에게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술이라고
는 맹장수술 조차도 해보지 않았던 내게 수술이라는 단어는 망설임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
으니까.

그리곤 본격적인 골수채취 준비에 들어갔다. 가족들의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이걸 꼭 해
야만 한다는 신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다만 거절을 하지 못했고(물론 그럴만한 특별한 이
유도 없었다.)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골수채취 준비는 첫 번째로 약간
의 채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예비 검사를 다시 한번 했다. 두 번째로 내가 수술
해야 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심전도 체크도 하고 의사선생님도 만나고 수술 후 회
복기간에 자가수혈을 할 혈액도 뽑아두고 장장 6시간이 넘는 시간을(보통은 2~3 시간이면
된다.) 병원에서 보냈고 7월말 휴가를 맞춰서 수술시기도 정했다. 하지만 이식받을 친구가
좀더 좋은 컨디션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술은 연기 됐고 그사이 내가 수
술 받을 병원도 다른 곳으로 바뀌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검사도 다시 하고 그러다 보
니 가을이 됐다.

드디어 입원이다. ○○의료원 소아병동, 다 큰 어른이 소아병동이라니, 말도 안되지만 병실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성인이라는 것을 잠시 잊으시고 내게 주사바늘을 꼽던 간호사 선생님처럼 항상 자신이 돌보아 오던 꼬마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내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은 일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입원 첫째 날이 가고 있었다. 담당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수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저녁을 먹고 일찍 잠 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올리 없었다. 긴장이 돼서 잠을 설쳤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끔씩 체온을 재 가시고 그러면서 새벽이 찾아왔고 이미 잠은 제대로 자지 못한 거고 해서 일찌감치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누워 있었다. 간호사 선생님의 마지막 체온점검, 수술실로의 이동, 수술실 밖에서의 잠시동안의 대기시간이 흘렀고 수술실 안으로 옮겨졌다. 마취를 위해 깊은 호흡을 두번 쉰 것 외에는 더 이상 수술실에서의 기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겨울에 벌거벗고 있는 것 같은 추위가 밀려오고 몽롱한 정신속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허리에서 목직함과 함께 통증이 전해져 왔다. 수술은 끝났고 회복실에 도착한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는지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 내 입에서는 옆의 사람들처럼 통증 때문에 끄끙대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은 조금씩 선명해져 갔고 난 회복실을 나와 병실로 옮겨졌다. 침대는 어제의 조금 불편했던 것에서 편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날씨는 아주 좋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가 되기까지 잠을 자고 깨는 것을 반복하면서 몸은 차츰 정상을 회복해 갔다.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 날이 됐고 엉덩이에 4개의 바늘구멍이 생겨났으며 그때까지는 많이 아팠다. 한 쪽은 조금 더디 아물어서인지 걷는 것도 불편했다. 불편감을 주던 모래주머니도 치우고 허리에 붙였던 붕대도 떼어버리고 샤워도 할 수 있게끔 테이핑 처리도 하고, 이제 퇴원 준비는 모두 끝났고 퇴원했다.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뭔가를 했다는 기분은 든다. 골수이식 받은 친구가 좀더 건강하게 회복되어 새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이번 경험이 내게도 잊을 수 없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나의 가치관 실현을 위해

김 영 철

내 가치관은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도움을 주면서 살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말로만 해왔지만, 그날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날이어서 행복했다. 나의 조그만 불편이 남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

골수기증을 하게 된 동기는 헌혈의 집에서 헌혈자등록을 하면서부터였다. 내 가치관을 조금이나마 실현하기 위해서 헌혈을 했다. 헌혈은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헌혈을 하면서 누워있는데 골수기증에 대한 것이 보여서 간호사에게 물

어 보면서 적십자사 헌혈의 집에 골수기증희망자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 언제 등록했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나하고 유전자가 맞는 사람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고 반가웠다.

전화를 받고 좀 더 정확한 정밀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기 위해서 골수은행협회를 직접 방문하였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골수은행협회 정도라면 규모가 더 커야 할거라고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았다. 알고 보니 사단법인이었다.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들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정밀검사를 하면서 결과가 좋게 나오기만을 바랬는데, 원하던대로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 그 뒤로 환자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추석연휴를 쉬고 일요일에 입원했다. 처음으로 병원 1인실에 입원해 봤다. 전에 한번 입원해 본 경험이 있어서 특별히 겁이 나거나, 수술이 걱정되지는 않았다.

먼저 오신 코디네이터분이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입원 수속을 하고 기다리고 계셨다. 그날 저녁까지는 친구들이 방문하여 같이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오전에 수술 준비를 하는데 특별히 걱정되는 것은 없었다. 어릴 때 수술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소변기를 끼는 일이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 제일 힘들었다.

수술실로 이동할 때는 좀 이상했다. 몸에 아무 이상도 없으면서 수술실에 가고 있으니... 수술실에는 다른 병원과는 다르게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긴장을 풀어주려고 그랬나? 어찌되었건 기분은 더 좋았다.

순식간에 마취가 되고 깨어보니 회복실이었다. 회복실에서는 마취가 덜 깨서인지 머리가 좀 어지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이 들었다. 골수채취한 곳은 별로 아프지 않았지만 오히려 소변기가 끼워져 있는 곳이 더 불편했고, 수술한 뒤로 계속 링겔을 꽂고 있는 것이 제일 불편했다. 내가 입원하면서 처음으로 간병인이 옆에 있었는데, 아직 마취가 덜 깬다면서 잠을 못 자게 하셨다. 오히려 그 때가 힘들었던 것 같다. 어찌되었건 회복은 잘 되었다.

골수채취 수술을 해본 경험으로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골수기증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조금만 더 남을 생각해 주는 희생정신만 있다면 골수채취 때 불편함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이라 본다. 아마도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형제간에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조금만 자기 몸과 시간을 희생해서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는가, 우리 모두 한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기만을 바란다.

현재 등록된 골수기증희망자가 외국에 비해 아주 적다고 하며 국내에 일치자가 없으면 일본 등으로 일치자 검색을 요청한다고 한다. 많은 환자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사는 일...

최 충 일

어느날 우연히 T.V에서 백혈병에 걸린 어린 두 형제의 투병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 형은 이미 투병기간이 오래 지나서 골수 이식을 해도 살 수 없다고 했고, 동생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골수기증자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일본인인데 기증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꼬마의 부모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치밀었는지...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현재 우리 나라는 기증희망자가 너무 적어 지금의 골수이식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아쉬움만 주고 있다. 기증희망자 한 사람의 결정으로 한 생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나도 기증을 하기로 했다. 기증 신청을 하면서 나는 나하고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꼭 기증을 하겠다고.... 한편으론 “설마 나하고 맞는 이가 나타날 수 있을까?”하는 마음이었다. 골수기증희망자등록을 했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바빠 살고 있는데 2년이 지나 연락이 왔다. 나하고 맞는 이가 있다고 검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씩씩하게 대답은 했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 겁도 나고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리고 얼마후 1차 검사를 했고, 검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나쁜 마음도 들었다. 마음과는 달리 검사 결과는 일치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날짜만 잡히면 된다. 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술 전날 병실에 누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바람도 쏘일 겸 병원을 한바퀴 둘러보았다. 병실마다 왜 그리 아픈 사람이 많은지 아직까지는 멀쩡한 내가 조금 어색해서 병실로 빨리 돌아왔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잠깐 잠이 들었을까 간호사의 노크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이했고, 수술실로 곧장 향했다. 수술실까지는 정신이 말짱했는데, 수술실 문을 밀고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 그 다음은 생각이 나질 않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시 병실이었다.

수술부위에 약간의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그리 아프진 않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퇴원을 하였고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 왔다. 내가 좋아하는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가끔 영광의 주사 자국을 보면서 세상 사는 일이 정말 우연에서 시작되는구나.....

행복하세요.

염 승 환

저는 골수기증자 입니다.

저의 골수를 이식 받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시기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수혜자 분께서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되셔야지 만
저도 기증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힘내세요!

[수혜자이야기]

새로운 삶

김 성 원

안녕하세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할지 모르겠군요. 저는 당신에게서 골수를 이식 받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일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스물 아홉 그때 울산에서 한 증권회사에 근무 중이었고 추석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99년 8월 한달 동안 미열이 나더니 결국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10월 1일에 ○○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백혈병이라고 진단 받게 되었을 때 왜 하필 내가 이 병에 걸려야 하는가? 라는 생각과 불행에 많이 슬퍼했습니다. 어쨌든 항암치료를 하면서 저의 형과 여동생의 골수는 일치하지 않았고 골수협회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유전자 일치하는 분이 36명이라는 경이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당간호사가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놀라워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두 번의 항암치료를 거쳐 2000년 1월에 골수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균실에서 혼자 1달 동안 있어야 했는데 당신의 골수를 1월 ○○일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아마 2~3일전부터 입원을 하였겠죠, 이식후 병원에

서 2월말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식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부반응(이식편대 숙주반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초에 먼저 입과 피부로 왔는데 매운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게 되었고 피부는 많이 검게 변하고 간의 수치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으로 치료하면서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9월에 공부하면서 회사에 복귀를 준비하던 중에 감기에 걸려 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부반응은 면역세포가 일으키는데 이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를 없애는 약을 먹게됩니다. 결국 면역이 없어 쉽게 감기에 걸리고 다시 숙주반응이 페로 와서 숨쉬는 것이 가끔 힘들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해서 입원을 반복하다가 결국 10월부터 대략 6달을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약의 부작용으로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몸은 아픈 곳이 많아졌고 항암치료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에 집에 왔지만 멀리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힘들고 불면증과 뼈마디까지 아파 오더군요. 정말 이 때는 내가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아마 삶을 포기하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니던 교회의 작은 기도원에서 침도 맞고 요양생활을 하게 되면서 몸은 다시 좋아졌습니다. 6달 동안의 요양생활 끝에 8월말에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수도 있고 테니스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에 복귀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1달 뒤에는 회사에 다니고 있을꺼예요.

전 너무 아팠지만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내가 걷고 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구나 이렇게 뛸 수 있구나” 라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직장에 가서 아프지 않고 다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램이 없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 한 사람이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프기 전보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수기증신청을 하지만 실제로 당신처럼 기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이식할 그 당시 간호사가 얘기해 주더군요. 나와 똑같이 나이도 29세이고 남자이고 혈액형도 O형이고 아마도 특별한 관계인 것 같군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사시는지 결혼은 하셨는지? 골수 추출시 많이 아프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군요. 항상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손길

김동화님의 부인

기증자님께

계절이 추운 계절로 바뀌려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기증자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덕이 아니겠어요.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1년전 남편의 병명을 안 순간 절망감에 휩싸여 살았지요.
건강하고 직장생활에 충실한 유능한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나 병으로 인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어요. 그러나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코디네이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증자님께서 골수를 기증하시겠다고.....
기꺼이 응해주신님께 정말 고맙습니다.
설렘과 두려움 속에 이식을 받았지요. 부작용 없이 열도 나지 않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건강한 골수를 갖고 계셨나봅니다.
추운 계절은 다가오지만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 속에 우리 가정은 항상 따뜻한 봄날만 있으리라 믿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기증자님의 고마움을 남편과 나의 가슴속 깊이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골수채취 때 많이 불편하고 아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아픔속에 남편의 건강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 갈 것을 생각하니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건강하시고 영원히 행복하시라고 항상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기증자님
우리에게 아직도 기나긴 터널이 있겠지만 기증자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고마웠다고 되새기고 싶고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외부 원고]

춘천마라톤대회 참가기

전인구 장군 / 국방부

지난 10월 21일 춘천마라톤 풀코스에 난생 처음 참가해본 소감입니다. 기증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위해 좋은

역할 하실 것과 환자와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완치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아래 병마와 싸워 이길 것을 기원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따져봐도 없는 것 같다. 나보다 업무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창의력과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 각종 운동종목에서 나오는 비교도 안되는 프로선수들... 나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야에서조차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도 난 그들 모두를 그렇게 대견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것 같다. 2~30년 전만 해도 우리들은 자가용 타는 사람들을 우러러 보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한 사람을 존경했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 사람들도 뭐 별거나 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기 시작하면서 나보다 나은 그들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처음 참가해본 마라톤 풀코스 42.195km, 105리를 뛰면서 마지막 한시간 정도의 매순간 순간마다 나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견해 보일 수 없었고 내가 왜 진작부터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지 송구스러운 마음이 계속 솟아 나왔다. 오늘의 출전을 위해 그 좋아하는 골프, 등산도 못하고 바쁜 일과시간을 피해 밤10시 전후 매일 1시간이상 7~8개월 동안 한강 고수부지에서 달리기 연습을 해왔고 한달 정도 철저한 식이요법으로 체내 글리코겐 관리를 위한 단백질, 탄수화물 음식 섭취를 해왔으며 그 결과 관리된 체력과 정신력을 100% 다 발휘해서 뛰었음에도 나보다 앞서간 4,928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란 말인가. 그 중에는 여성들도 수백명 포함되어 있음에라. 그들 모두가 육상선수 출신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공무원, 직장인, 가정주부들인데 얼마나 노력을 하였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정말 대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뛰기 시작한지 7~8개월에다 하프코스 출전경험 4회만에 첫 번째 참여한 풀코스에서 4시간35분의 기록이라면 그리 나쁜 기록은 아닌 듯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더 잘할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생긴다. 사실 시일이 경과하면서 이렇게 차분하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그 시간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날 후반 1시간 가량은 정말 악몽같은 시간이었다. 내가 이거 뭐하는 짓이야?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것이지?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여 눈물이 울컥 쏟아질 것 같았던 그런 시간이었다. 오늘 대학원 골프모임에 갔으면 이 고생 않고 맑은 가을하늘로 장쾌한 드라이버 샷을 날리는 환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분명히 그건 아니다. 내가 시도한 일들이 잘못 되었을리 없어. 이런 경험은 아무나 못해. 이런 체험 한번도 없이 어떻게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서 내 인생의 긴 시간에 비하면 극히 짧았던 그 고통의 순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앞으로의 내 인생의 길에 빛을 밝혀주려는 듯 다가온다. 뛰기 전후에 체중이 3~4kg 차이가 날 정도로 몸 속에 있는 수분, 글리코겐, 糖分이 다 빠져나가는 그 극심한 상태를 이겨낸 기쁨이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보다 수십배, 아니 헤아릴 수 없는 환희로 느껴진다.

우리네 일상생활 얼마나 견디지 못할 만큼의 상황을 이겨내 본 경험이 있는가. 그런 어려운 상황은 스스로 만들지도 않고 또 그만큼 도달하기 이전에 그만두어 버린다. 내 의지와 관계

없이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고달픈 일들, 건디기 어렵고 솟아날 구멍이라곤 없을 듯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背水의 陣을 치듯 그 상황에서 탈출하려고 발버둥친다. 기회가 있을 때 스스로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는 훈련을 쌓는 것은 곧 그만큼의 어려움을 어렵게 느끼지 않게 됨으로써 세상살이에서 불편함보다는 만족감과 행복,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훈련이기도 한 것이다.

처음 출발선을 뛰쳐나갈 때는 만여명 모두가 저마다 자신감에 넘치고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다. 조금 뛰었나 싶으면 어느새 5km, 10km 표지판이 나타난다. 마음만 먹으면 수십 명쯤은 언제라도 추월할 수 있다. 나중을 대비하여 초반에 무리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험자들의 주의사항이 하도 많아 부득이 속도를 자제한다. 마의 35km 지점이라느니 정신이 몽롱하고 다리에 쥐가 나며 꼬인다느니 하는 일들이 남의 일로만 여겨지면서 이러다가 한번도 그런 어려움 없이 완주하면 무슨 이야기 꺼리가 있을 것이며 시시하게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함께 참가한 동생과 나란히 두시간 정도를 쉽게 나아갔다.

매 5km마다 놓여진 급수대가 점차 기다려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오른편의 의암댐과 왼편 산의 가을단풍, 누렇게 익은 벼, 싱싱한 배추밭이 있는 들녘을 지나면서도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가끔씩 동네를 지날 때마다 옹기종기 모여 파이팅을 외쳐주는 주민들에게 대꾸하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점차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이 놀랍게 느껴진다. 남들이 다 힘들어 해도 나는 이 레이스를 즐겁게 받아들이고자 다짐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현실은 어쩔수 없이 고통이 나를 끌고 간다. 30km가 지나면서 부터는 거리표시 팻말이 가도가도 나타나지 않고 아직 남은 10여km를 어떻게 가나 걱정이 앞선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 보란 듯이 참여했는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핑계만 있으면 걸게 된다. 오르막이라고 걸고, 물 한잔 마시느라 걸고, 무릎, 허벅지에 소염진통로손 바르느라 걸고 앞사람이 걸으니 함께 걸고 뒷사람이 추월해 지나가니 그들을 따르지 못해 예라 모르겠다 하면서 걸고. 겨우 스트레칭 해가면서 조금 뛰고는 또 걸고. “이러면 안되지. 목표시간 하한선인 4시간 30분은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 몽롱하게 뛰는듯 걷는듯 가고 있는데 “아빠, 큰아빠!”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전방에서 응원차 외출나온 이등병 아들녀석과 조카딸,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열렬히 소리를 지르며 힘을 준다. 어 이녀석들이 언제 여기까지 왔지? 우리아빠 마라톤 출전한다고 부대에서 특별히 시간까지 얻어 응원 나왔는데 아빠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되지 하면서 또 한참을 뛰다가 그들이 안보이는 지점까지 온 것 같아 또다시 걷는다. 다행이도 쥐가 나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물집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한 발자욱 옮겨 놓기가 천근이다. 며칠전 TV프로그램 중에 가수 조성모가 마라톤 풀코스를 9시간 정도에 완주하면서 마지막 무렵에는 다리가 꼬이면서 제대로 걸지도 못하고 눈동자가 희미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사람이 뭐 저렇게까지 약한가, 훈련이 제대로 안되었구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멀리 순천, 고흥에서, 울산, 진주에서 참여한 유니폼들이 눈에 많이 띈다. 그들 나름대로 많은 훈련을 쌓아 자신 있는 사람들만 만여명이 풀코스에 감히 도전 했을텐데 골인지점을 5

~6km 남겨두고는 2/3가 걷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도로옆 인도에 벌렁누워 응급처치 요원이 다리를 치켜들고 문지르며 풀어주고 있고 앰블란스가 분주하게 왔다갔다 한다.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높이 들어볼까, 예라 한번 크게 뛰어보자 하고 큰맘 먹고 막 뛰어보니 이게 웬일인가. 수십명을 순식간에 추월하게 된다. “아하 이래서 위기가 바로 호기로구나”. 나를 포함한 모두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한상황에 이르렀을 이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바로 큰 성취를 이루는 찬스가 된다. 남들도 모두 힘차게 뛸 때는 추월이 어렵지만 모두 힘들어하는 그때 조금만 용기를 내면 엄청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골인지점인 종합경기장이 가까워질수록 길 양쪽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남편, 아빠, 직장동료를 애타게 기다리는 인파로 가득하다. 종합운동장 문을 들어서서 트랙을 돌기 시작하는데 누님, 자형 그리고 집사람이 몇 시간동안 4,900여명을 보낸 끝에 만나는 기쁨으로 환호성을 올린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무사히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시 힘을 얻어 단거리 달리듯이 2~30명을 추월하여 골인지점을 통과하니 행사사진 찍는 사람들이 연신 카메라 후랏쉬를 터뜨린다. 금방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싶다. 누군가 인터넷에 띄운 소감문에서 처럼 앉아서 영영 울어버리고 싶다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거리가 조금만 길어도 아예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르고 반대로 조금만 짧았다면 이런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을까? 어떻게 42.195km의 적절한 거리를 마라톤 코스로 설정했을까 하는 고마운 마음이 생긴다. 나보다 두배 이상 빨리 뛰는 선수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내 나이 또래에 나보다 1시간 반, 무려 15km이상을 앞서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런데 어찌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려면 우리나라에서 3시간30분 이내의 공인기록이 있어야 한다니 이는 엄두도 못낼 일이 아닌가.

5만보 이상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한발 한발마다 박자에 맞추어 간절한 염원으로 외웠던 반야심경 306字 천부경 81字. 몇백번을 반복하며 지구사랑, 인류사랑, 국운융창과 60만 대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화합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국방부 마크의 머리띠를 두르고 뛰고 또 뛰었다. 출발 때 다짐했던 이 염원들이 고통으로 껍 찻던 마음과 몸속 세포 구석구석까지 깊이 새겨져 오래도록 나의 일상적 마음가짐과 마음씀, 그리고 행동으로 자연스레 스며 나오리라. 오래전 6년간이나 고생했던 허리디스크나 테니스 중 무리하여 20여년 지속된 어깨통증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상태로 끝까지 잘 견디어준 내 몸 구석구석 모두가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럽다. 다시는 이런 고생 사서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얼마동안이나 지속될지 모르겠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더욱 매력이 있고, 그 과정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유혹으로 인해 아마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